『제임스 조이스 저널』
제13권 2호(2007년 12월) 41-57

아버지의 부재와 역사적 외상

이 인 기

조이스(James Joyce)의 『율리시스』(*Ulysses*)에서 「아이올로스」("Aeolus")의 첫 장면은 영국의 지배 상황에 대한 은유이다. 더블린 '심장부'에서 넬슨(Horatio Nelson) 동상이 내려 보는 가운데 발차계가 전차의 출발을 통제하는 상황은 아일랜드 전역의 소통이 영국의 감시 아래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게다가 굉음을 내지르는 전차를 인간의 목소리로 통제하는 과정은 그 통제의 물리적 폭압성을 인간 목소리와 전차 굉음의 격차만큼이나 증폭시켜 드러낸다. 특히 그 인간의 목소리가 쉰 상태라는 사실에서(*U* 7.6) 그러한 물리적 통제의 습관성도 포착할 수 있다. 더블린의 '심장'은 혈류의 소통마저도 일상적으로 통제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캉(Jacques Lacan)의 방식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은유적 표현은 영국의 지배를 직접 발화할 수 없게 하는 억압적 기제의 결과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조이스가 과연 그러한 이유에서 은유를 사용했느냐라기보다 억압받는 방식이 심장을 통제받는 듯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여기서 심장을 통제한다는 것은 그만큼 치명적이어서 출구가 없는 상황에 대한 다른 표현이기도 한데, 피식민 상태에서

출구가 없는 상황이란 그 물리적 통제의 한 축을 동족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지시한다. 물론 위 단락에서는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 더블린 연합전차회사(Dublin United Tramway Company)는 다수의 실직자들을 고용하고 있었는데(http data ①) 이 상황에서 발차계는 그 물리적 통제의 실행자가 동족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다. 즉 그 발차계는 민족주의자를 상징한다. 실제로 조이스가 민족주의의 폭력적 행보에 대해서 영국의 지배 상황에 못하지 않은 비중을 두었음은 비평가들이 지적하는 대로이다(Cheng 1-2). 위의 은유 속에는 넬슨을 민족주의로 치환해도 마찬가지의 상황이라는 암시가 억압되어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영국의 지배와 그로 인한 민족주의의 발생, 그리고 그 일탈은 모두 더블린 사람들의 삶의 조건을 형성하고 그들의 의식 속에 외상을 남겼다.

영국의 지배에 관해서는 탈식민주의적 비평의 성과가 있기는 하지만(Duffy 2-3; Cheng 83-5), 본고에서는 그러한 탈식민주의적 입장보다는 정신분석학적 용어를 차용하는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영국의 지배가 초래한 더블린 사람들의 삶의 조건이 그들의 '심장'이 막힐 정도의 심리적 외상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아이올로스」장에 그러한 상황이 적확하게 묘사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그 장에 묘사된 더블린 사람들의 삶의 조건이 아버지의 부재와 관련 있으며, 그것이 초래한 외상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민족주의적인 수사 혹은 허구를 생산하였고 —「아이올로스」장의 기법이 이단논법(enthymeme)인 사실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그 모든 상황의 의미가 스티븐이 이 장의 말미에 제시한 우화 속에 표명되어 있다고 분석하고자 한다.

I. 생활의 소음과 아버지의 부재

더블린의 중심가는 전차 소리, 발차계의 고함 소리, 맥주 통 구르는 소리, 신문사 인쇄기 소리 등 온갖 종류의 생활의 소음으로 진동한다. 신문사에서도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로부터 인쇄기의 구동 소리, 그리고 신문팔이 소년들의 고함 소리에 이르기까지 '강철 신경'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소음이 끊이지 않는다(*U* 7.128). 이러한 소음이 더블린의 지리적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장면은 생활의 물리적 조건이 이념이나 가치를 압도하는 상황을 시현한다. 디지(Disey) 교장의 역사관을

공박하면서 스티븐이 내뱉은 '길가에서 외치는 소리'(*U* 2.386)도 사실상 이러한 상황을 예시한 것이었다. 비록 길가에서 외치는 소리가 중층적이며 다원적인 속성을 지닌다 하더라도(이인기 129) 그 때문에 이념이나 가치의 정돈된 세계보다는 생활의 물리적 조건을 더 부각시키는 것은 사실이다.

이처럼 더블린의 현실은 이념이나 가치가 생활의 조건에 역전당하는 상황,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이름(Lacan 259)이 상징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물론, 민족이나 독립이라는 숭엄한 가치가 존재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물리적 조건이 두드러지는 현실은 그러한 가치가 생활의 현장으로부터 유리되어 있음을 반증한다. 실제로 넬슨 탑이 더블린의 중심가를 하감하는 형세는 민족주의의 위축을 웅변하고 있다. 독립 투쟁은 거듭하여 좌절당하고 급기야 민족의 지도자로 추앙받던 파넬까지 몰락하면서 민족주의는 더욱더 배타적이며 폭력적인 양상으로 전개되어 좌절과 실패의 흔적으로만 인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상황에서 생활의 소음이 두드러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상징적 질서, 즉, 주도적인 가치나 이념이 소실된 곳에서는 '모든 것이 자기 방식대로 말하게 된다'(*U* 7.177). 더블린은 지향을 상실한 생활의 소음만이 진동하는 공간인 것이다.

물론 식민지 사회이므로 민족주의가 더블린의 생활세계를 통제하는, 이른바 '식민화한 생활세계'의 상황이 논리적이기는 하지만, 게일어 부흥 운동의 역기능이나 문예부흥운동의 편협성 그리고 반유태주의의 폭력성에서 보듯이 이미 민족주의는 위축된 거인의 발호 이상으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다. 더블린의 생활세계는 그 상징적 질서를 소실한 상태인 것이다. 「아이올로스」장의 주요 배경은 신문사인데, 사회의 소통의 정점에 있는 신문사에서도 이념이나 가치가 생활의 소음 속에 소실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점은 이런 면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특히 "프리먼즈 저널"(*Freeman's Journal*)이라는 그 신문사가 아일랜드 자치는 옹호하되 온건하고 보수적인 편집 성향을 노정하는 것 자체가 민족주의의 이념적 성향의 약화를 웅변하고 있으며, 그 귀결로서 그 신문사에서도 광고를 모집하고 돈을 빌리며 현재의 상황을 과거의 영화로 치환하는 등 인쇄기의 기계적 소음만큼이나 물리적인 생활의 소음이 지배하고 있다.

이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그 상징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공간에서는 신문도 그 소음의 다양성과 중층적인 구조를 수용하지 못한다. 편집의 원칙보다는 대주교의 편지가 우선적인 고려 대상이 되고 경마 호외를 더 신속히 발행하며 기사

도 이단논법에 의존하여 선정적으로 작성할 따름이어서 그 자체가 생활의 소음의 한 종류에 불과한 상태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더구나 신문이 '가위와 풀' (*U* 7.32)로 편집되는 형편이므로 기록 행위의 역사적 의미보다는 '그 날로 족한' (*U* 7.736) 파편적 존재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될 뿐이다. 이처럼 사회의 가치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통합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신문은 생활의 쇄설물에 지나지 않게 된다: '나중에 그건 어떻게 되지? 오, 고기를 싸지, 소포도: 여러 모로 쓰여, 천 가지 하고도 하나 더' (*U* 7.137-38). 물론 이것은 신문의 일반적인 물질적 소용에 국한된 언급일 수 있지만, 신문이 의사소통이나 기록의 기능보다는 화장실 휴지(*U* 7.241)로서의 쓰임새로 먼저 인식된다면, 하나의 현상학적 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소설이 인쇄되어 있건 식재 회사 광고가 실려 있건, 혹은 부음 기사가 실려 있건, 더블린에서의 신문은 물질적 쓰임새 이상의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상황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블룸은 신문에서조차 이념이나 가치보다는 생활의 물리적 조건이 부각되는 현상의 원인을 정의의 소실과 관련시키고 있다. 그가 생각하는 정의는 생활의 물리적 조건에 질서 혹은 지향성을 부여할 아버지의 이름의 근간적 속성이다. 이후에 그가 강고한 민족주의자인 시티즌(Citizen) 앞에서 부정(injustice)에 관해 말하는 것을 보면(*U* 12.1474) 이 점을 추정할 수 있다. 그가 정의의 소실을 연상할 때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린 것은 공교롭기는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부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는 의의가 있다.

> 불쌍한 아버지는 옛날이야기 책을 들고 손가락으로 글자를 거꾸로 짚어가며 나에게 읽어 주셨지. 유월절 [이야기를]. 내년엔 예루살렘에서. 정말, 오 정말! 그리하여 오랜 과정을 거쳐 우리는 이집트 땅에서 구출되었고 그런 뒤에 구속의 집으로 갔지 ... 그 다음에 양과 고양이와 개와 막대기와 물과 백정이 나오지. 그런 다음에 죽음의 천사가 백정을 죽이고 백정은 소를 죽이고 개는 고양이를 죽이지. 약간 우스꽝스러운데 자세히 살펴보라구. 그런 걸 정의라고 해. 만인이 만인을 먹는 것. 결국 그게 인생이기도 하고 (*U* 7.206-14)

블룸은 신문사의 조판부에서 거꾸로 식자된 판형을 보면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렸다. 아버지는 성경 이야기를 읽어주셨는데, 블룸은 그 이야기에서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바빌로니아로 유폐되고 계속 그러한 고통을 반

복적으로 겪었다고 생각하며 그 반복되는 고통을 노랫말인 "양과 … 고양이를 죽이지"와 연관시켜 연상한다. 그러면서 삶의 과정이 고통의 반복이라면 삶의 원리는 '만인이 만인을 먹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추정한다. 그가 인식하기에 삶에 있어서 정의는 소실되었다. 즉 아버지의 부재는 기정사실인 것이다. 일견 구원의 드라마일수도 있는 그 이야기에서 정의의 소실을 읽어내는 것은 억압적 상황이 조성한 심리적 증상을 의심하게 한다. 사실 그의 냉소적인 어투에서는 아버지의 부재가 남겼을 전형적인 상처를 감촉할 수 있다. 그의 개인적인 이력도 아버지의 부재가 심리적 외상을 남겼겠지만 식민 지배를 받게 된 더블린 사람들로부터도 유사한 심리적 외상을 발견할 여지는 충분하다.

이처럼 정의, 혹은 아버지의 이름이 고통의 신음 속에서 소실되고만 사회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는가? 노랫말에서처럼 사람들은 고통을 반복적으로 겪으며 약육강식적 원리의 정점에 죽음의 천사가 군림하는 상황을 영창하지는 않을 것이다. 블룸이 기억해낸 노랫말이 그가 인식한 현실의 상황을 적절히 표현하기 위해 원래의 노랫말로부터 변형된 것이었다는 사실에서 그 기대의 대상을 짐작할 수 있다. 그의 의식에서 되뇌어진 노랫말에는 한 존재가 삭제되어 있다. 원래의 노랫말에는 죽음의 천사를 죽이는 성스러운 존재가 있었던 것이다(Gifford 132). 그의 노랫말 속에 그 존재가 삭제되었던 것은 고통의 연속 과정에서는 그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따라서 '결국 그게 인생이기도 하고'라는 냉소적인 어투 속에는 약육강식적 원리의 정점에 있는 죽음의 천사를 죽여줄 성스러운 존재, 곧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기대가 잠재되어 있거나 억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암시되었듯이 현대 더블린 사회에는 그 메시아적 역할을 감당할 존재가 없다. 식민 사회에서 상징적 질서의 소통을 담당할 신문조차도 그러한 역할로부터 거리가 멀다. 이 날 정오에 목격된 '우리의 구세주'(*U* 7.52)를 닮은 편집인은 신문사 건물의 위층으로 '승천'하고 있고, 그때 그러한 성경적 인유에서 연상되는 마리아(Mary)와 마싸(Martha), 그리고 오페라 「마르타」(*Martha*)의 상실의 노래는 그 구세주가 다시 내려오지 않을 것을 암시한다. 즉, 신문이 대변하는 식민지 하위주체는 그 상황을 돌파할 대안적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전보 배달 소년이 "프리먼 신문사 [전보요!]"(*Freeman*!)라고 외쳤을 때 블룸의 의식 속에서 그 구세주가 "프리먼" 신문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하더라도(Well, he is one of our saviors also. *U* 7.68) 신문이 더블린의 심장부를 통제로부터 구원하여 '소

통'(circulation)을 회복하고 '인간을 자유롭게'(free man) 할 것인지는 의문 부호로 제시된다(*U* 7.71). 실제로 '프리먼'들의 행태는 이러한 의문을 강화하기까지 한다.

> 참 우스워. 저 신문쟁이들이 새로운 사건에 대해 소문을 들었을 때 싸돌아다니는 꼴이라니. 풍향계 같애. 한 입에 찬 숨 더운 숨 다 내뿜는 거야. 어떤 걸 믿어야 할지 모르게 된다구. 어떤 이야기가 옳다 싶으면 금새 다른 얘기로 옮아가. 신문에서 무턱대고 서로를 맹렬히 공격하다가 그런 다음에는 모든 것이 잠잠해져버려. 그러고는 헤이 친구 잘 있었나 식이지. (*U* 7.308-12)

이와 같이 지향성을 상실한 형태는 상징적 질서의 소실을 웅변하고 그만큼 죽음의 천사를 죽여줄 성스러운 존재의 출현을 희구하는 상황을 조성할 것이다. 그래서 민족의 영도자 파넬의 부재는 더블린 사람들에게는 심리적 외상일 수밖에 없다. 조이스도 지적하듯이, 파넬은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동족을 구출한 모세와 동일시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CW* 225),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의 크리스마스 만찬 식탁의 논쟁에서 보듯이 그의 정치적 몰락과 뒤 이은 죽음은 그의 지지자들에게 사실상 심리적 공황 상태를 불러일으켰다. 실제로 그의 죽음 이후 아일랜드 정치인들은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Nebuchadnezzar) 왕의 환상 속에 나타난 '진흙발의 신상'이 암시하는 것처럼(*U* 16.1329-30) 지리멸렬하여 파넬 같은 영도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부재는 메시아의 출현을 희구하는 심리를 촉발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더블린의 심장부에 우뚝 서 있는 압제자의 탑은 오히려 그 높이만큼이나 영도자의 부재를 환기시키는 표상이 된다.

사실상 아버지의 부재는 오늘 아침 블룸이 집을 나온 뒤에 디그넘(Dignam)의 장례식을 거쳐 정오의 더블린 심장부에 이르기까지 목도했던 현상이기도 했다. 물론 그것은 블룸의 행적과 그의 의식의 흐름 속에 은유적으로 제시되어 있었지만 대상을 달리 해가며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더블린의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일종의 증상과도 같은 것이었다. 따라서 더블린의 심장부에 좌대만 놓여 있는 파넬의 동상 자리(*U* 6.320)는 우뚝 솟은 넬슨 탑과 대비되는 만큼 그의 물리적 부재와 더불어 아버지의 부재를 현시하는 객관적 상관물로서 기능한다. 더블린 사람들은 이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그 상징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아버지의 부재가 두드러진 시공간에서 그 심리적 외상을 안고서 살아가고 있다.

II. 수사와 아버지의 부재

더블린의 심장부에 식민 지배의 상징으로 우뚝 서 있던 넬슨 탑과는 대조적으로 민족의 영도자 파넬의 동상은 1899년 좌대가 놓인 뒤 1911년이 될 때까지 건립되지 못하고 있었다. 소설 속의 현재인 1904년에 이르기까지의 그 빈 자리는 더블린 사람들에게 역사가 남긴 심리적 외상의 표상이었을 것이다. 심리적 외상이 항상 역사의 결과물이라는 지적도 있지만(Boheemen-Saaf 19), '역사에 시달린' 더블린 사람들의 경우에는 특히 아버지의 부재로서 표상되는 그 외상의 증상이 생활의 전반에서 목격되었다. 그 보편성은 소통의 중심인 신문에서 그러한 증상이 탐지되고 있다는 사실로써 증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비록 식민지 하위주체들이 아버지의 부재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암시되기는 했어도, 하위주체적 의미작용이라 지칭되는 작업은 지속되었다. 그들은 민족주의적 언설을 생산함으로써 민족주의의 발흥과 조국의 중흥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는 활동을 계속했던 것이다. 그들은 생활의 조건을 초월하는 민족의 이념과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수사를 사용하였다. 그들에게 수사는 가공의 현실을 생산하는 효과적인 도구였다. 그러나 수사에 실린 민족주의적 발상의 전개 방식이 신문의 표제 작성 관행처럼 이단논법적이어서 논리적 근거가 박약한 허구로 평가되기도 하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제가 기사의 내용을 대변하도록 작성된다고 할 때, 「아이올로스」장에서 보여주는 신문의 표제 작성 방식은 표제와 내용의 불연속성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표제가 기사 내용과 상응하는 것은 2개뿐이며(Hodgart 129) 나머지는 '과장, 불성실, 저속성, 그리고 무지한 허위'의 결과로 작성된 것들이다(Peake 195). 예를 들어 "그리고 그때의 유월절 축제"(*U* 7.203)라는 표제 아래에는 신문사에서 블룸이 아버지와 함께 연상된 유월절과 유태인의 성가를 의식 속에 떠올린 내용과 신문사의 현실적 공간에 관한 내용이 함께 제시되어 있는데, 그 표제는 블룸의 아버지가 말한 유월절이라는 단어와, 표명되지는 않았지만 그 단어가 암시하는 역사적 의미를 간취하여 마치 유월절의 축제를 현장 보도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처럼 필수 전제에 근거하기보다 일반적 통념에서 출발하여 특정 객체에 대하여 개연성을 추론하는 방식으로는(Peake 189) 자의적이며 부분적인 진실만을 전달하게 된다. 이처럼 논리적 연속성이 유지되지 않는 표제 작성 방식은 사

실상 수사학의 오손에 해당하는 것이다(Peake 195).

이와 같은 표제 작성 관행상의 이단논법은 더블린의 사회상을 주도하는 특정 사고 경향의 증상을 대변한다. 이단논법에 근거하면 논리적 절차보다는 개연성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일부나 순간을 기의로 규정함으로써 수사학과 현실의 괴리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것은 피식민지의 민족주의가 노정하기 쉬운 사고 경향이기도 한 것이다. 결여나 결핍이 사회상을 주도하면 목표지상주의가 논리적 연속성을 압도하게 되기 때문이다. 조이스는 민족주의의 이단논법적인 허장성세를 비판할 의도로 주로 「사이클롭스」("Cyclops") 장에 과도한 수사학적 장식을 사용한 글들을 희화적인 문체로 제시하고 있지만, 「아이올로스」장에서는 댄 도슨(Dan Dawson)의 연설문이 그것에 해당한다.

> 아니면,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이끼 낀 둑 사이로 산들산들 서풍을 받으며 찬란한 햇빛과 노닐면서 혹은, 숲 속 거목들의 하감하는 수림이 명상에 잠긴 가슴위로 드리운 그림자 아래에서, 재잘대다가 바위 장벽을 만나 싸우기도 하지만 굽이굽이 흘러서 넵튠의 푸른 영토, 넘실대는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보라.... 말하자면, 우리의 부드럽고 신비스러운 아일랜드의 황혼의 초월적이며 반투명한 광채에 젖어 있는 봄날 초원의 우거진 숲과 구비치는 평원 그리고 감미로운 목초지, 바로 그 아름다움에 비하면 비록 멋진 곳이라 자랑하는 다른 지역의 대표적 장소가 있기는 해도 상대가 되지 않는, 아일랜드 화첩의 비길 데 없는 전경 속에서... (*U* 7.243-324)

네드 램버트(Ned Lambert)가 읽어준 이 연설문을 듣고 맥휴(MacHugh) 교수는 연설문이 '최근에 발견된 키케로의 유작'이라면서(*U* 7.270) 그것의 과장 혹은 '부풀린 허풍'을 비꼰다(*U* 7.315). 물론, 더블린의 누항과 소음에 익숙한 도시민의 평가일 수는 있지만, 기표에 장식이 부가될수록 기의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한편, 오손된 형태이건 과장된 양식이건 수사를 구사하는 것은 현실을 벗어나려는 소망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수사학은 기표와 기의 사이의 거리를 조성하여 그 공간 속에 허구의 세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허구의 세계 속에 자신들의 결여나 결핍을 보상하는 소망을 투여하게 된다. 물론 그 소망은 논리적 절차 혹은 직접 참조의 과정을 통해서는 결여나 결핍의 현실만이 부각되는 상황의 반향이다. 표준 논법의 논리적 절차가 유지되며 가치나 이념이 생활에 질서를 부여하는 상황은 아버지의 부재의 치환인 것이다. 그래서 허구에 투사된 소망

은 그 세계를 정당화하기 위한 새로운 논리를 필요로 한다.

우선, 그 세계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을 결핍으로 내몬 압제자를 그 세계로부터 추방해야 할 것이다.

> 그들의 문명이라는 게 뭐였지? 장대했지, 그건 인정해: 하지만 천해. 똥간: 시궁창이야. 유태인들은 광야에서나 산 정상에서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다. 여호와의 제단을 쌓읍시다"라고 말했어. 그런데 로마인들은, 그 발꿈치를 따라다닌 영국인들도 마찬가지로, 발을 내디딘 (우리 땅에는 한번도 들어오지 않았지) 모든 새로운 영토에다 자신의 분변강박증을 퍼뜨렸지. 그는 토가를 걸친 자기 몸뚱아리 둘레를 살피면서 말했어,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다. 변소간을 세웁시다." 라고. (*U* 7.489-95)

정신분석학에 따르면, 똥은 아동이 자아 발달 단계에서 자신의 신체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인데, 영국의 문명을 배설과 동일시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분리의 욕구를 표명하는 것이다. 「사이클롭스」장의 시티즌이 '영국인들의 문명이라는 것은 매독 전염에 불과해'라는 의미로 내뱉은 '문병'(文病: syphilisation, *U* 12.1197)이라는 말도 그와 동일한 의식의 표명이다. 물론 압제자와 공개적으로 동일시하려는 피식민지인의 사례는 미소하겠지만, 압제의 과정 속에는 압제자가 강요한 허위의식을 진실로 받아들여 무의식적인 동화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같은 분리 의식의 표명은 민족주의적 기조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분리 의식의 저변에도 이단논법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이들이 분리를 주장하는 태도는 마치 "압제자들은 똥간에 대한 집착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물질적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으므로 논리적 연계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실제로 맥휴 교수는 분변강박증이 압제자들의 물질성을 대변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명분에 봉사하는 민족의 정신성과는 혼재할 수 없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다.

> 우리는 항상 실패한 명분에 충실했지, 교수가 말했다. 우리에게 성공은 지성과 상상력의 죽음을 의미했던 거야. 우리는 성공한 자들에게 충성을 다하지도 않았어. 그저 복종할 따름이지. 나는 노골적인 라틴어를 가르치고 있어. 나는 시간이 돈이라는 격언을 그들의 정신성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종족의 언어를 말

> 하지. 물질적 지배인 셈이야.... 나는 정신의 언어인 그리스어를 한 마디 해야겠어.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똥간 제작자와 하수구 건설자는 결단코 우리 정신의 주인이 될 수 없다구. 우리는 트라팔가에서 파선한 유럽 가톨릭 기사도의 나라와, 아에고스포타미에서 아테네 함대와 함께 침몰한 정신의 제국, 임빼리움이 아닌 나라의 백성들인 거야. 맞아, 맞아. 그들은 침몰했지. 신탁을 오해한 피루스가 그리스의 운명을 회복하려고 마지막 시도를 했었고. 실패한 명분에 매달린 거야. (*U* 7.553-70)

그의 발언의 취지는 현재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제국은 물질주의적 패권자이므로, 지성과 상상력을 죽이면서 물질적인 성공을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 민족으로서는 실패한 명분에 충실한 셈이 되고, 그 정신성은 현실 세계에서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문명의 고고한 품격을 부각시켜서 분리의 근거로 기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분리 의식에 대한 논리적 보완 장치를 제시한 것이었겠지만, 실패한 명분, 즉 정신성에 충실함으로써 현실 세계에 복종하게 된 것이라는 논리 자체가 '지배자의 성향은 물질적이다, 그러므로 피식민자의 성향은 정신적이다'라는 이단논법의 연장선 위에 있다. 이처럼 이단논법을 보완하려는 논리가 이단논법에 오염되어 있으므로 피식민지의 현실을 벗어나려는 소망이 투사된 허구의 세계는 사실상 구원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맥휴 교수가 암송한 테일러(John F. Taylor)의 연설도 신문사에 모인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 것이다. 그 연설의 내용은 압제자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영도해낸 모세가 물질적 안일의 유혹을 떨치고 시내산 정상에서 영원자와 대화하며 십계명을 안출해내어 정신적 승리를 거두었음을 강조한다. 물론, 그 연설의 수사학적 구성이 의도하는 것은 아일랜드의 현실을 탈출하고자 하는 욕구를 모세의 위업을 통하여 표명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허구적 구성은 그 의도와 달리 결여나 결핍의 현실을 삭제하지 못했다. 모세의 위업이라는 매체(vehicle)에 실릴 대의(tenor)로서의 탈출 가능성은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 연설은 지시대상이 부재한 공허한 수사에 그칠 뿐인 것이다(Peake 197). 테일러의 연설이 그 상당 부분을 암송한 맥휴 교수의 자부심에 기여할 따름이며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는 사실만을 환기시키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

결국 더블린 사회는 결여나 결핍이 조성한 허구를 재생산하지만 그 생산 과정이 이단논법으로 오염되어서 사실상 구원의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이다. 아버지의

부재도 허구 속에서 치환되지만 아버지의 현존을 구현하지 못하는 현실만 부각하게 된다. 스티븐이 신문사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 사이먼이 그 자리에 없었으며, 더욱이 그의 현전이 소망의 대상이지도 않은 상황은 더블린의 이러한 현실에 대한 은유이기도 하다.

III. 역사적 외상과 욕망의 의미

맥휴 교수가 신문사에서 테일러의 연설을 암송하는 상황은 허구의 세계에 투사된 소망이 재생산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테일러의 연설은 신문에 실리고 그 과정은 마치 맥휴 교수가 거의 정확하게 암송하듯이 문자화되어 배포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더블린 사람들은 결여나 결핍의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강화하는 사실상의 자기기만을 실행하게 된다. 따라서 테일러의 연설과 같은 '예언적 환상'(*U* 7.910)은 문자 그대로 '예언적 환상'을 싣고 있기 때문에 그 환상의 구현보다는 단순히 그 환상이 재생산되는 과정의 현전으로서만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허구의 세계에 투사된 소망은 이단논법의 함정처럼 지속적인 욕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민족주의가 아버지의 부재를 치환하는 허구를 계속 생산하는 대로 현실의 결여나 결핍에 대한 보상은 계속 지연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의 핵심을 아무도 통찰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비록 그 환상이 현실구현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하더라도, 레너한(Lenehan)의 익살스런 회문[Madam, I'm Adam. And Able was I ere I saw Elba. *U* 7.683]이 암시하는 폐쇄된 순환의 함정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연설문이 구성한 허구의 세계를 거론하지만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그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또 다른 허구를 생산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적인 관행이 되어 있는 사실에서 그 점을 알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더블린 사람들은 경마 도박을 통하여 아버지의 부재를 보상할 대상을 찾으려는 악순환의 고리에 매이게 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 모든 과정의 책임을 지긋지긋한 역사에 지운다(*U* 7.676-77).

이러한 더블린 사람들의 행태를 보며 스티븐이 속으로 내뱉은 말은 상황의 핵심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당신들이 결단코 깨어나지 못할 악몽이지(*U* 7.678). 물론 이 말은 그가 아침부터 되뇌어온 자신의 역사관에 관한 명제를 변형한 것이

기는 하지만, 그가 신문사의 사람들에게 들려줄 우화 속에 투사한 비전(*U* 7.917)을 환기시키고 있다. 두 노파가 자두를 사서 평소에 가고 싶었던 넬슨 탑에 올라 더블린 시내를 조망한다는 내용의 우화는 제자들이 예수의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스티븐의 설명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예수가 그 비유의 의미를 친절하게 설명해주었던 것과는 달리 스티븐은 여전히 암시만 한다. 그의 우화를 자신의 관점대로 설명하여 좌중을 다시 한번 압도하려 한 맥휴 교수는 '신이 주시는 평화'(*U* 7.1056)라고 제목을 만들어 붙이지만 그것은 그가 암송한 민족주의적 연설의 허구처럼 매체만 두드러진 공허한 수사에 불과하다.

스티븐이 들려 준 우화는 테일러의 연설문을 보완하거나 혹은 반박하려는 대응의 수단이라기보다 더블린 사람들의 증상에 대해 깊이 숙고한 뒤 구성한 진단에 해당한다. 소위 식민지 하위주체들의 '예언적 환상'과 경마 호외를 알리는 신문팔이 소년의 외침이 공존하는 공간은 '배울 것이 너무나, 너무나 많아서'(*U* 7.915) 그 배움의 결과로 하나의 비전을 형성하게 한 것이다. 그 비전은 아버지의 부재와 그것이 유발한 증상을 지시하고 있다.

두 노파는 물론 아일랜드의 상징 인물이다. 비평가에 따라서는 두 노파를 스티븐이 「프로테우스」("Proteus") 장에서 목격했던 두 산파로 보고 생과 사의 영역을 관장하는 인물의 형상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Hodgart 126). 그러나 두 노파 자체가 생산성과는 거리가 있는 모형인데다 남근 상징인 넬슨 동상 앞에서 마비된 채 서있는 모습이 생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넬슨 탑 위에서 '노파들이' 자두씨를 뱉은 행위를 두고 정자의 산출로 해석하여 남근 상징의 소축[죽음]을 연상하는 것도 자의적이다. 이러한 이유도 있지만 두 노파를 전통적인 인식대로 아일랜드의 상징으로 보는 것이 조국의 상황에 대한 스티븐의 해석을 논리적으로 대입시킬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두 노파의 행위는 조국의 상황에 대한 비유로 이해하면 된다.

그들은 식민지의 결여나 결핍을 대변하듯 '시장기 어린 반죽 냄새가 밴 축축한 밤거리'(*U* 7.927)를 연상시키는 빈민가에 산다. 그들은 넬슨 탑에 올라 더블린을 조망하는 것이 꿈이었다. 넬슨 탑은 더블린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대리한다. 비록 식민지적 압제를 환기시키기는 해도 생활 속의 의미작용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상징적 질서의 모형인 것은 분명하다. 노파가 탑을 오르고자 하는 것은 그 상징적 질서의 현전을 구현하려는 행위이다. 아버지를 아들에게 상징적 질서로

인식시키는 것은 어머니인 것이다(Lemaire 83). 물론 그것은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거나 옹호하려는 의향은 아니며, 정신분석학적으로 말해서, 어머니가 아버지의 이름을 욕망하는 심리적 조건에 해당한다. 탑은 어머니의 남근을 암시하며 실현되지 않는 욕망을 지시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높은 줄 몰랐던'(*U* 7.947) 탑을 겨우 오른다. 어지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미리 준비했던 빵과 돼지고기를 씹으면서 탑의 꼭대기에 도달한다. 상징적 질서의 현전은 그렇게 사력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결국 그것이 현시하는 것은 지붕들, 즉, 또 다른 상징적 질서였다. 그들의 눈에 띈 것은 그들이 처음에 원했던 더블린 시내의 전경이 아니라 교회였던 것이다. 그 순간 유일한 상징적 질서에 기대어 생활의 소음을 정리하고자 한 소망은 사라진다. 지향의 대상이었던 상징적 질서가 해체되는 순간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 그 탑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U* 7.1010).

소망이 삭제당하는 순간에 촉발된 이와 같은 존재론적인 공포는 의지 대상을 찾게 만든다. 그들은 그 순간에 줄무늬 속치마를 모두어 쥐었다(*U* 7.1013). 물론 자리에 앉기 위한 몸짓이지만 굳이 줄무늬 속치마가 지시된 데에는 피식민 상태의 조국에서 상징적 질서를 추구하는 지향 자체에 대한 통찰이 실려있다. 줄무늬 속치마는 19세기 영국이 제조하여 유포한 소비문화의 표상이었기 때문에(Best British Manufacture, http data ②), 피식민지인이 그들의 욕망을 구현하려는 과정도 결국 지배 체제가 허용하는 혹은 일상화시킨 체제 속에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욕망은 구현될 수 없고 아버지의 부재는 여전히 지속되는 현상이 된다. 그 후 그들은 그 치마를 깔고 앉아서 그 '외팔이 간통자' 넬슨을 응시하였다(*U* 7.1017). 그러나 해체되어 본질이 노출된 상징적 질서에 대해서도 그들은 어떠한 조처를 취할 수 없다. 실제로 그들은 너무 지쳐서 올려다보거나 내려다 볼 수도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더군다나 목에 쥐도 났다. 사실상 그들의 꿈은 좌절되었다.

그때 그들은 자두를 꺼내어 먹기 시작했다. 잘 익은 자두는 그들의 좌절감에 대한 대리보상 기제를 암시하는데, 실제로 좌절을 보상하기라도 하는 듯 그들은 즙을 입가에 흘리면서 게걸스럽게 스물 네 개의 자두를 모두 먹어치웠다. 그리고는 그 씨를 난간 사이로 뱉었다. 그들이 뱉은 씨에 대해서 불모의 주제를 거론하거나(Kenner 251) 성경 속의 씨 뿌리는 비유를 언급하는(Hodgart 119) 평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버지의 부재 상황에서 그 씨는 소위 식민지 하위주체들이 생산하는 언설들을 지시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예수가 들려준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씨 자체가 생명의 말씀이어서 그 씨가 어느 밭에 떨어지느냐가 중요 관심 대상이지만, 노파들이 뱉은 씨는 떨어질 밭과는 상관없이 거의 무차별적으로 여러 개가 내던져졌으므로 생명의 지속을 연상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생명력 없는' 말씀의 씨앗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더블린의 시내로 하나 둘씩 뱉은 그 씨들은 지배자의 상징적 질서 앞에 좌절한 민족주의가 대리보상을 위해 이단논법의 함정 속에서 구성한 허구의 세계를 비유한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이 허구의 세계 속에 구성한 '우리들의 멋진 나라'가 과장이나 허풍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댄 도슨의 나라'(*U* 7.275)에 지나지 않는다는 조롱을 받았던 이유도 그 때문이다. 이 점에서는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노파가 두 명이었던 이유도 드러난다. 전통적으로는 한 명이지만, 이단논법적 언설로 구성한 조국의 모습은 또 다른 나라였으므로 두 명의 노파를 등장시킨 것은 그러한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의도의 표명인 것이다.

물론 하위주체적 의미작용의 기제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해석이다. 그래서 맥휴 교수도 요지를 엉뚱하게 파악하였다. 하지만 스티븐은 예수처럼 친절히 그 우화의 의미를 가르쳐주지 않고 제목만 알려준다. 그가 알려준 제목은 "비스가 산에서 본 팔레스타인 전경"이었다. 도슨, 부쉬(Seymour Bushe), 테일러 등의 연설과 맥휴 교수의 언설을 식민지의 하위주체적인 소망으로 이해한다면, 이 우화는 '약속의 땅'을 언급한 테일러의 연설을 모순되게 변조한 것일 수 있다(Peake 194). 하지만, 스티븐은 좌절을 기대로 포장하는 민족주의적 수사가 더블린 사람들에게 씨앗처럼 뿌려지고, 그 씨앗이 욕망을 배태하는 악순환을 구성하고 있음을 통찰하고 있었다. 제목이 그러한 상황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모세가 비스가 산정에서 바라 본 팔레스타인은 자신이 들어갈 수 없는 약속의 땅으로서 구현될 수 없는 욕망을 지시하는 것이므로, 스티븐이 보기에 맥휴 교수를 위시한 식민지 하위주체들의 허구 생산하기는 구현되지 않는 욕망의 대리보상 기제일 뿐이었던 것이다.

스티븐이 보기에 아버지의 현전에 대한 욕망은 대리보상만 있을 뿐 충족될 수 없는 꿈이었다. 그 욕망은 쥬이상스(jouissance)처럼, 아니면, 라캉이 의도했던 '아버지의 이름'(le **nom** du père: the name of the father)과 '아버지의 부재'(le **non** du père: the no of the father)의 언어유희처럼 상징화와 의미의 바깥에 존재하는 개념일 수 있다. 하지만 더블린 사람들에게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망의 대상

으로 되돌아온다. 스티븐이 역사를 두고서 '결코 깨어나지 못할 악몽'으로 규정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그는 더블린 사람들의 행태를 단순히 비판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운행 과정을 통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에 따르면 아버지 혹은 상징적 질서에 대한 욕망은 인간의 삶의 조건일지도 모른다.

IV. 맺는 말

앞서 살펴본 대로, 역사가 남긴 외상은 정오의 더블린 심장부에서도 진단할 수 있었다. 더블린 사람들의 심장이 막힐 정도의 생활의 조건은 아버지의 부재와 상관있었다. 역사의 과정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그 상징적 기능을 소실하였고 그 결과 모든 것이 제 나름으로 내지른 소음이 압도하는 공간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그 가운데 민족주의자들의 언설은 아버지의 현전에 대한 욕망을 수사에 실어 허구의 세계 속에 구현하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부재를 치환한 허구는 그 세계를 구성한 수사가 이단논법의 함정에 빠져 있어서 그 욕망을 실현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생활의 소음이 압도하는 공간에서는 조국을 상징하는 하프의 소리가 치실의 공명음 정도에 비견되는 것이 현실이었던 것이다(*U* 7.370-74). 하지만, 맥휴 교수도 "우리는 단어들, 단어들의 소리 때문에 헷갈려서는 안 된다" (*U* 7.484-85)라고 말하면서 모순되게도 단어들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연설에 그 스스로 도취되어 읊조리고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의 현전에 대한 욕망은 다시 또 시도될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스티븐은 이러한 식민지 하위주체들의 의미작용을 통찰하고 있었다. 그는 그들의 언설이 대리보상 기제를 재생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노파가 뱉어버린 자두 씨에 관한 우화를 들려주었다. 하지만, 맥휴 교수를 위시한 더블린 사람들이 스티븐의 지적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어도, 만일 욕망의 본질이 대리보상 기제를 계속하여 재생산할 수밖에 없는, 어쩌면 '부재한' 존재라면, 그들의 행위는 역사의 과정을 사는 인간의 운명인지도 모른다.

(명지대)

인용문헌

이인기. 「새로운 역사의 의미: 「네스터」장의 역사담론」. 『제임스 조이스 저널』 10.1 (2004): 117-34.

Cheng, Vincent. *Joyce, Race and Empi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Duffy, Enda. *The Subaltern Ulysse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4.

Hodgart, M. J. C. "Aeolus." *James Joyce's* Ulysses. Eds. Clive Hart and David Hayma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4. 115-30.

Gifford, Don and Robert J. Seidman. *Notes for Joyce: An Annotation of James Joyce's* Ulysses. Rev. ed. New York: E. P. Dutton & Co., 1988.

Joyce, James. *The Critical Writings of James Joyce*. Ed. Ellsworth Mason and Richard Ellman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59.

_____. *Ulysses*. Ed. Hans Walter Gabler. New York: Random House, 1986.

Kenner, Hugh. *Dublin's Joyce*. London: Chatto and Windus, 1955.

Lacan, Jacques. *The Seminar of Jacques Lacan*. Book II. Ed. Jacques-Alain Miller. Tr. Sylvana Tomaselli. New York: Norton, 1988.

Lemaire, Anika. *Jacques Lacan*. Tr. David Mace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7.

Peake, C. H. *James Joyce: The Citizen and the Artist*.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7.

Van Boheemen-Saaf, Christine. *Joyce, Derrida, Lacan, and the Trauma of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Internet Source:

① http://www.flickr.com/photos/tomcosgrave/sets/480 (20 Oct. 2007)

② http://www.manchestergalleries.org/our-other-venues/platt-hall-gallery-of-costume/the-collection (25 Oct. 2007)

Abstract

Dubliners' Historical Trauma with the Absence of the Father

Ihnkey Lee

This paper serves to analyse Dubliners' living conditions induced by the absence of the father. As for Dubliners, the absence of the father is a symptom of trauma caused by the hardships of Irish history. The long English repression and colonialization causes Dubliners to search for the father as a redeemer.

We refer to "Aeolus" as the best description of such a condition. In "Aeolus," we find the loss of intention which cannot be detected at the presence of the father. Dubliners indulge in drinking during the day and horse racing. The Nationalists try to revive the intention by producing rhetoric to create fictions about the independent country to come. Nationalist rhetoric, however, unknowingly commits enthymemic fallacies. That is why nationalist movements just provide ways of vicarious satisfaction, which also cannot make up for the absence of the father.

Seeing into the heart of such symptom, Stephen gives a parable to deal with searching for the father in vain. The father means the object of desire but the desire cannot be achieved, in the same way that Dubliners continue to live with the absence of the father. To put it in Stephen's way, the absence of the father is the trauma "from which you will never awake."

■ Key words : the absence of the father, trauma, history, rhetorics, parable, desire
(아버지의 부재, 외상, 역사, 수사, 우화, 욕망)

논문 접수: 2007년 11월 12일
논문 심사: 2007년 11월 22일
게재 확정: 2007년 12월 10일